

보도시점 바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2026. 9. 29.(화)

한국수자원공사,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로 댐 수질 살리고 친환경 에너지원 만든다

- 29일 한국남동발전(주)와 업무협약 체결, 댐 상류 가축분뇨 자원화로
물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선순환 구축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9월 29일 대전 본사에서 한국남동발전(주)와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형태의 연료로 제조한 것

비점오염원은 오염 발생 지점이 광범위하고 강우 시 단기간에 유출되는 특성이 있어 댐 상류 유역에서는 발생원 단계에서의 선제적 관리가 중요하다. 과도하게 살포된 가축분뇨 퇴비는 강우 시 비점오염원으로 작용해 질소와 인 등 영양염류 유입을 증가시키고 수질 관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영주댐 상류 유역에서 발생한 잉여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자원화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수질 오염원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발전용 연료로 활용하는 친환경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공급 및 품질 분석을 총괄하고 한국남동발전(주)는 공급받은 연료를 발전소 연소에 활용하며 관련 운영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고체연료 생산 과정에서 댐 내 수거된 목본류 등 부유물을 보조 원료로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 가축분뇨와 댐 부유물을 혼합·성형함으로써 고체연료의 발열량을 높여 에너지 활용 효율을 개선하고 댐

부유물 처리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해 자원 순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체연료의 생산·공급·활용 전 과정에 걸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연내 고체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댐 수질 관리와 자원순환을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은 “이번 협약은 유역 내 오염원의 하천 유입을 줄이고 이를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모델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성공적인 협력을 통해 물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1매(별첨). 끝.

담당 부서	물환경계획처 환경계획부	책임자	부 장	김희년 (042-629-4320)
		담당자	차 장	김희석 (042-629-4326)





[사진] 9월 29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남동발전(주)와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